

29년째 2,235명 학생에게 124만 2,531원 전달

— 장춘조선족부녀협회, 제 57회 ‘대리어머니’ 장학금 전달식 개최



▲ 관련 단위 책임자 및 교원 대표와 대리어머니들 합동사진

4월 13일, 장춘조선족부녀협회에서 주최한 ‘3.8’ 국제로동부녀절 계열 활동 및 제 57회 대리어머니 장학금(助学金) 전달식이 장춘시조선족중예술평에서 진행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협회 회장단을 선두로 한 1:1 대리어머니, 2:1 대리어머니, 집단 대리어머니 등 함께 66명과 17개 집단 대리어머니들이 4만 4,000원을 모금해 장춘시의 7개 여러 민족 중소학교 학생 50명에게 총 2만 5,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장춘시 조선족중학교, 조선족제2중학교, 룡원구조선족중학교, 관성구조선족중학교, 구대구조선족중학교, 회족중학교, 도시건설공정중학교 등 학교의 19명 조선족 학생, 17명의 한족 학생, 6명의 회족 학생, 2명의 만족 학생, 2명의 좡족 학생, 2명의 장족 학생, 1명의 위글족 학생, 1명의 동상족 학생에게 전해졌다.

활동에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장춘시부녀연합회, 장춘시조선족중예술평 관련 책임자와 아리랑도보팀 부분 회원, 장춘시조선족예술가협회, 길림대학 자원봉사팀과 화려한 민족복장을 알뜰하게 차려입은 부녀협회 15개 분회의 회원 대표 등도 합 150여명이 참석했다. 활동은 사회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긍정에너지로 전파하는 장춘조선족부녀협회의 활약적인 형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마당으로 떠올랐다.

전달식에서 문호실 회장은 “우선 당과 정부의 지도하에 우리 부녀협회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 민족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감격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부녀협회는 설립 35년간 애심공익활동을 29년째 전개하고 우리의 ‘대리어머니’ 활동은 민족단결의 조화로운 국면을 촉진했다.”면서 “우리는 이 애심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애심으로 문명을 전하고 다채로운 도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날 전달식은 빈곤학생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隐私)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현장에 초청하지 않고 집단 대 집단의 방식으로 진행, 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들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장학금을 수령했다. 모금 잔액은 올해 하반기에 빈곤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계속 사용된다.

한편, 지난해 9월에 문호실 회장은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길림의 좋은 사람, 가장 아름다운 민족단결의 별’로 선정되고 협회는 문화장의 인솔하에 지난해 장춘시부녀연합회로부터 ‘2023년도 부녀아동 공익대상상’을 수상했다.

료해에 따르면 장춘조선족부녀협회는 일찍 1995년부터 장춘시부녀연합회의 ‘한명의 아동을 도와 한 가정을 안정시키고 한곳의 사회안전에 힘

을 보태며 후대에 복을 마련하자’는 창의에 적극 호응해 장춘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단체 명의로 된 대리어머니 활동을 조직했다. 올해로 29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춘조선족부녀협회 대리어머니 활동은 그동안 연인수로 총 2,235명 학생들에게 무려 124만 2,531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선행을 널리 알렸다.



▲ 길림대학제2병원 부인과림양(林杨) 부주임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부녀협회의 초청으로 여성건강 전문강좌가 진행되었다. 길림대학제2병원 부인과 부주임, 부인과 진찰부 주임, 부주임의사, 부교수, 박사생 지도교수인 림양(林杨)이 ‘자궁암을 멀리하고 건강을

조기에 지켜야 한다’를 주제로 여성건강 관련 지식점들을 해학적인 언어로 조선족 여성들에게 선전, 보급했다. 귀가 솔깃해지는 신선한 내용들은 관중들의 공감과 함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후에는 민속놀이 활동이 진행된 가운데 장춘시조선족중예술평 지하활동실은 조선족 전통유희들인 윷놀이, 화투놀이, 물동이 이고 달리기 등 시합으로 흥성거렸다. 활동 현장은 화려한 한복차림을 한 조선족부녀협회 회원들이 행복을 감지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놀이장으로 되었다.

이번 활동에 앞서 4월 12일 오후, 신입 회원인 연변정영식품가공유한 회사의 현화자 경리는 장춘조선족부녀협회 회원들에게 가치가 5만여원에 달하는 230개의 생선세트를 선물하면서 베풀기에만 습관되었던 애심어머니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현화자회원은 근 30년간 조선족 여성들이 심심일만 모은 성금으로 2,000여명 여러 민족 빈곤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온 장춘조선족부녀협회의 선행에 감동을 받고 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생선세트를 선물하게 되었다면서 금후에도 협회의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대리어머니 행사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경봉 정현관 오진 기자

매하구시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질서있게 추진

4월에 들어 매하구시에서는 대상 재개 건설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매하구시 보장성 임대주택 대상은 날씨가 맑고 시공 기간이 좋은 시기를 바짝 틀어쥐고 시공 진척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대상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제때에 완성되도록 확보했다.

4월 1일에 정식으로 조업을 재개한 이래 매하구시 보장성 임대주택 대상건설현장은 분망하다. 타워크레인이 건축자재를 분주히 운송하고 지게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로동자들이 질서있게 드나든다. 길림신달건축공정유한책임회사 책임자 왕신산은 “대상은 전면적인 조사를 거쳐 관련 요구에 따라 4월 1일 전면적으로 시공 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 로동자들은 문과 창문 설치, 실내 회칠, 외벽 보온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토목공사는 8월말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상건설현장은 표준화된 강판 방호망, 실명제 스마트 공사장 관리 시스템, 전문화 먼지관리시설, 규범화 차량 세척 설비 등으로 성급 표준화 시범 공사장의 규범으로 관리되고 안전생산과 문명시공을 실제에 적용하고 있었다.

/유경봉기자 /사진 왕요휘



▲ 4월 1일에 정식으로 조업을 재개한 이래 매하구시의 1,600채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

안도현,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정밀지급 보장

안도현민정국은 전 현의 장애인 봉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두가지 보조금’ 정밀지급을 착실하게 추진했다.

— 주동적인 봉사로 정책의 착지를 추진했다.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승낙고지서’ 500여부를 발부했다. 동시에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림문자를 보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 무례군 곤란장애인 생활보조금 142만여원과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 77만여원을 지급했다.

— 일상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정밀보장을 실현했다. 매달 보조금 지급 명단과 장애인연합회의 관련 명단 그리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 극빈층, 고아, 사실적으로 부양자가 없는 아동, 사망자 등 정보를

빅데이터로 비교하여 년초부터 연인수로 총 2만여명을 대조하고 새롭게 증가한 빈곤장애인 96명에게 생활보조금을 전달하며 99명을 퇴출시켰다. 새롭게 증가한 중증장애인 61명에게 간병보조금을 전달하고 65명을 퇴출시켰으며 봉사 대상의 ‘보장해야 할 사람’은 모두 보장하고 퇴출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퇴출’하도록 확보했다.

— 네트워크 공유 처리로 봉사 효능을 향상시켰다. 장애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과정 인터넷 처리’, ‘성간 총괄 처리’에 신청된 사연을 즉시 수리하고 ‘두가지 보조금’의 지급을 동태적이고 질서 있으며 정밀하고 고효율적으로 확보했다. 년초부터 관련 신청을 1명으로 수리하여 지역, 호적간의 제한을 타파하고 군중들의 일처리 편리도와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정현관기자

13억 3,400만명! 전국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국가의료보험국에서 11일에 발표한 <2023년 의료보장사업 발전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13억 3,400만에 달한다.

“가입자수에 따라 측정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가입률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총량 규모가 공고해졌다.”며 국가의료보험국 계획재무법규사부사장 주영봉은 “2024년 3월말의 최신 상황을 보면 주민의료보험 가입규모는 2023년 동기와 거의 비슷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보험 가입 대세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기본의료보장망을 건전히 하여 보험 가입의 최저보장선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보험 가입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험 가입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있다. — 보험 가입의 최저보장선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2023년, 원래의 의료보험 빈곤퇴치 난관돌파 임무를 맡았던 25개 성은 의료구제를 통해 총 7,308만 2,000명을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15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1인당 210.5원씩 지원하고 농촌 저소득 인구와 빈곤퇴치 인구의 보험가입률을 99% 이상으로 안정시켜 취약계층의 리익을 효과적으로 보강했다.

갑작에 따르면 2023년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과 의료구제 ‘삼중제



▲ 4월 11일, 국가의료보험국은 2024년 상반기 정례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도’는 연인수로 1억 8,000만명의 농촌 저소득 인구의 진찰에 혜택을 주고 1,883억 5,000만원의 비용을 경감했다. ‘삼중제도’를 거쳐 비용을 청구한 결과로 근 절반의 빈곤군중들의 연간 입원 의료부담 비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 보험 가입의 질이 향상되었다. 2022년에 성내에서 중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와 무효한 수치 근 4,000만 명을 제거한 토대에서 2023년에는 성간 중북 보험가입자 1,600만명을 제거했다. 이런 ‘중북 제거’의 영향을 고려하면 2023년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자는 약 400만명이 순수 증가하여 보험 가입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다른 한 수치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2023년 전국 진찰 및 입원 결산은 연인수로 82억 4,700만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하고 보험가입자의 진료 수요가 한층 보장되었다. 2023년에는 126개 약품이 새로운 약품 목록에 포함되고 그중 57개 약품은 ‘당해에 비준받고 당해에 목록에 포함’을 실현했다. 2023년에 성간 직접결제 인수는 연인수로 1억 3,000만명에 달해 더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보험의 봉사를 편리하게 향수했다.

— 보험 가입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었다. 2023년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13억 3,400만명이다. 그중 중병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3억 7,100만명, 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9억 6,300만명에 달한다. 중병원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900만명이 증가하여 보험 가입의 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었다.

2023년, 종업원과 주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9%와 12.4% 성장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 대우 향상과 지정 의료기구 기금 지불이 한층 더 보장되었다.

군중들의 진찰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범위를 한층 더 확대했다. 한편으로 종업원 개인계좌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문진 의약 비용이 기금 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험 가입 종업원들이 더 훌륭한 문진 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영봉은 “2023년, 연인수로 3억 2,600만명이 종업원 의료보험 문진 대우를 향수했다. 다음으로 개인계좌가 통합구역을 벗어나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가입자들이 문진개혁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최저선’에서 ‘질적 향상’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2023년 일련의 ‘실제적인’ 의료보험 조치는 보험가입자들을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로 만들었다. 문진 만성질환, 특수질환이 성간 직접결제의 토대에서 ‘재확대’를 실현하고 12가지 의료보험 분야의 ‘고효율적으로 하나의 일 성사’가 착지됨에 따라 2024년에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이 기대된다.

/신화사

대련, 백세인생 위한 로인건강강좌 개최



4월 12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는 ‘진민건강’에 관한 당중앙의 지시 정신을 참담게 기층에 시달리고 로인들의 건강장수를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로인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로인협회 산하 감동자, 중산, 사하구, 흥기 분회의 회원 80여명이 이 활동에 참가했다.

지난 3월에 기바꿈을 거쳐 당선된 김덕주(72세) 회장을 비롯한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신임 회장단은 대련시 여러 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족 의사들로 조직된 의학, 의료강좌팀을 조직, 조율하여 로인들이 쉽게 걸리는 고혈압, 당뇨병, 요추

간판탈출, 관절염 등 질병에 대하여 계통적인 계열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에 첫 순서로 대련대학부속중산병원 부원장이며 주임의사인 고필호교수가 강의를 시작했다.

고필호교수는 건강개념, 신장병 발병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계통적인 강의를 했다. 약 90분간의 강의가 끝난 후 고필호교수는 현장에서 로인들이 제기하는 걷기운동의 시간과 방법, 식사량과 방법, 수면 시간과 실패 등 질문에 대하여 료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답변하고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어 로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활동은 헌기택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김덕주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박정애 상무부회장이 총화발언을 했다. 박정애는 고필호교수의 강의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로인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환한 질병을 정확히 대하고 과학적으로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지킬 것을 부탁했다.

/리심민